

서울시 학원의 공간적 분포 패턴 변화

주경식* · 김경숙**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Patterns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Kyung-Sik Joo* · Kyung-Sook Kim**

요약 : 본 연구는 교육 현상에 대한 지리적 접근으로서 서울시 입시·보습 학원의 성장 과정과 지역별 분포 및 공간적 분포 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서울시 학원은 설립 초기와는 달리 입시·보습 학원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 초·중·고등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서울시 학원 분포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노원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종로구, 중구 등 도심지에서는 그 분포가 희박한 편이다. 서울시 입시·보습 학원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주거 공간이 외곽으로 분산·확대되면서 그 중심지가 도심에서 주변으로, 강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서울시 교육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원 중심지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지역은 종로구 청진동, 내수동 등을 시작으로 동작구 노량진동,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강남구 대치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원 분포의 지역차는 교육 기회의 불균등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계층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큰 편이다. 이상적인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위하여서는 학원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의 학생들을 위하여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주요어 : 입시·보습 학원, 학원 분포, 교육 공간의 변화, 교육 기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es of spatial distribution-patterns of the educational phenomena in Seoul. To understand the private educational trends,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re used as indices of the educational phenomena and their changes and growth of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are investigated. Unlikel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t present, most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are functioning to prepare for entrance examination and a supplementary instruction for the education of normal schools. Most of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enrolled in the private institutions. There is a wide range of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they are located densely in Kangnam-gu, Songpa-gu, Yangcheon-gu, Kangdong-gu and Nowon-gu but sparsely in Jongro-gu and Joog-gu.

Originally,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were distributed around the downtown until the

*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sjo@knu.ac.kr

** 서울 광남고등학교 교사 (Teacher, Kwangnam High School, Seoul), yunamiso@hanmail.net

1970s. But as the residential areas were decentralized and expanded to the outskirts in the late 1970s, the center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has been moved out from downtown of Seoul located in northern part of Han River to the south of Han River. In the changing processes of educational space, Chungjin-dong and Naesudong in Jongro-gu area was the incipient center of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itially, and then, the center was moved to Noryangjin-dong in Dongjak-gu and Apgujung-dong in Gangnam-gu. Now, Daechi-dong in Gangnam-gu becomes the new center.

As recently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become an important part in Korean education system, the regional unbalance i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has widened and it causes a pivotal social conflict that generates unequal opportunities for public education and those deepen the unbalanced economic structure and social justice in our society. Therefor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equal opportunity in the education system in Seoul,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reconsidered and evenly allocated to the students from various social classes.

Key words :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preparing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supplementary instruction, spatial distribu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changing processes of educational space, opportunity for education

I. 서 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에게 교육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랜 봉건 체제하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이후에는 신분 상승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예로부터 공교육과 더불어 사교육이 발달하여 왔으며 국가 교육의 한 축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교육은 학교 교육을 위한 보조기관으로 전락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교육의 불신과 지나친 학력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교육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와있다. 학원은 사교육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현재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생활에서 학교와 더불어 중요한 교육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 공간에 대한 지리적 관심은 지금까지 학군제 도입이나 학교의 입지 등 공교육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학원에 대한 문제도 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반면 지리적 접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도시 내부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주거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공간도 크게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의 지역차는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지 선호현상을 불러와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교육 환경의

지역 차는 공교육 측면보다는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평가되고 구조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학원 분포의 지역 차가 지역간 사회계층간 갈등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입시·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학원의 성장 과정을 분포상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고, 학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의 지역차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학원의 특징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로 서울시의 11개 교육청에 등록된 입시·보습학원 명단(2002년 10월 1일 기준)을 분석하고 각종 교육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학원 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0년, 1980년, 1990년의 전화번호부(직업분류)자료에서 파악한 학원 명단을 기초로 하여 학원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강남구 대치동 소재 보습학원을 대상으로 학원장, 학생과의 면담과 설문지 작성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학원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았다.

법에 의하면 사교육은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의미하고 공교육은 각급 공·사립학교의 정규교육과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 학교교육을 공교육으로 이해하고, 학원교육은 개인에 의한 과외나 학습지, 통신과의 등과 같은 사교육의 범주로 인식하여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II. 본 론

1. 서울시 학원 교육의 성장

1) 학원 교육의 성격

학원은 정규학교 이외의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개인적 차원에서 충족시켜주는 사회교육 시설로 사회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에 비해, 학원 교육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서 정규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형태, 교육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학원은 교습과정에 따라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독서실 등의 분야로 분류²⁾되는데 이중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는 실습, 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및 외국어 회화 등을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을 교습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과 관련된 학원이 이에 해당된다. 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법률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학원의 시설 기준은 교습 과정별로 달라 입시학원은 300m²이상,

보습학원은 90m²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³⁾.

2) 서울시 학원의 성장

서울시에서 오늘날의 학원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1920년대 초 기술교육을 위한 강습소가 생겨나면서부터이다. 해방 후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직업이 분화되면서 미용학원, 양재학원, 편물학원 등 기술분야 위주의 학원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의 학원은 행정 기관의 규제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립, 운영되다가 1955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이르러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학원은 입시 준비를 위한 문리분야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그 비중도 점차 커져왔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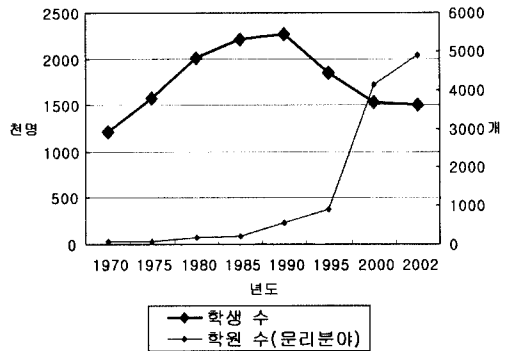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학생 수·학원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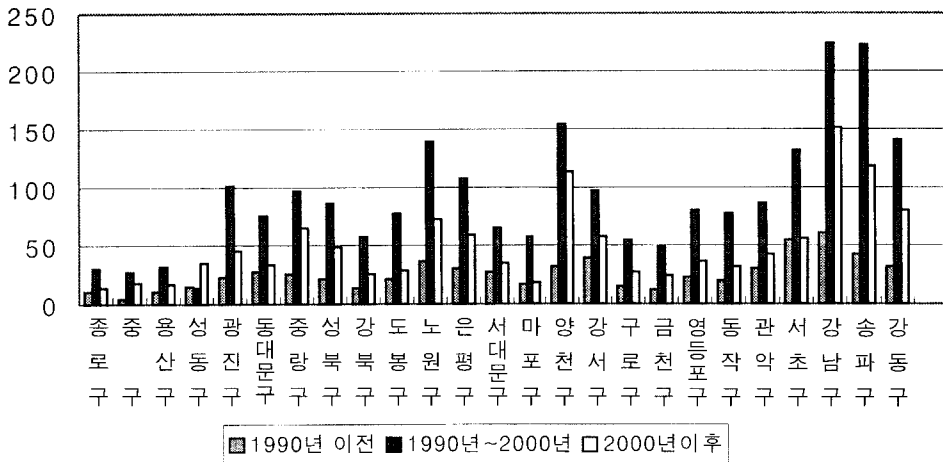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학원의 설립시기

는 학원 수와 수강자 현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2002년 서울시 전체 학원 수의 43.3%, 수강자 수의 약 67.2%가 문리분야로 이의 대부분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울시의 학원이 성장하게 된 것은 학원과 관련된 교육 정책의 영향도 크지만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온 서울시 교육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는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학원교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의 교육 환경이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그림 1).

그림 2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학원의 설립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1990년 이전에 설립된 것은 전체의 약 15.1%에 불과하고 재학생의 학원 수강이 허용된 1990년대 이후 2000년까지 10년 동안에 전체의 54.1%에 해당하는 2,200여 개의 보습학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2001년 이후 2002년 10월까지 약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1,3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학원이 설립되어 최근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설립되는 학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 학원 분포의 공간적 변화

서울시에서 학원 중심의 교육 활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뿐 아니라 공간적인 분포에서도 큰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도심의 주거기능이 주변지역으로 분산·확대되어가면서 학원의 분포는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공간상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1) 도심 집중기 (해방 후 - 1970년)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의 도심 지역은 서울의 심장부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로서 많은 중등교육 기관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도심 집중 현상은 공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시기 서울시 학원의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기술분야 위주로 대부분 4대문 내 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응집성을 나타내며 분포하였다. 1970년 당시 서울시에서 운영된 입시 학원은 약 50여개 정도

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의 종로 1-4동에 해당되는 청진동, 공평동, 내수동, 관훈동 등에 30개 이상의 학원이 집중되어 있었고 4대문 밖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구로동과 도봉구 미아동, 용산구 한남동 등지에 소수의 학원이 분포할 뿐이었다(그림 3). 이는 당시의 서울시 대중 교통수단이 한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차와 시내버스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들 노선의 대부분이 도심으로만 집결됨으로써 생긴 도심의 높은 접근도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종로구에 분포하였던 대표적인 학원으로는 낙원동의 경기학원과 경동학원, 인사동의 경북학원, 내수동의 대성학원, 관훈동의 등용문학원, 청진동의 양영학원과 신성학원, 공평동의 콜럼비아학원과 서울학원, 성진학원, 덕수학원, 금자탑학원, 관철동의 종로학원과 정일학원, 종로2가의 YMCA 학원과 제일학원, 도림동의 은석학원과 한일학원 등으로 이들 대부분의 학원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재수생들까지 모여들어 수강을 하던 곳으로 이 학원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입시학원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2) 주변지역 확산기 (1971년 - 1980년)

이 시기는 서울시의 도시 공간이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로 학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간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시의 시가지 확산은 근대적인 교통수단인 철도와 전차가 건설되면서 시작된 후 1963년 행정구역이 현재처럼 확장되고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울시는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1960년대 말부터 4대문 안과 그 주위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던 인구 및 학원, 공장 등의 교외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천호동, 불광동, 월곡동, 공평동 등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1978년-1981년)은 지역 확대와 더불어 도심의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도심부 교육 시설의 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도심에 위치했던 중·고등학교의 이전⁴⁾과 함께 1977년 4대문 안의 학원(주로 인문계 입시학원)의 강남 이전을 지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불응하면 강제로 학원을 폐쇄 조치할 정도로 강력하여 많은 학원이 분산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1970년대 말경부터 1980년

대 초까지 4대문 밖으로 이전한 학원으로는 종로학원, 성심학원, 세종학원, 경일학원, 대성학원, 양지학원 등 38개 학원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입시관련 학원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서울의 경제, 사회 활동이나 교통 조건이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도심에서 이전한 학원이 새롭게 입지한 지역은 주로 기존의 학원 지역에서 가까운 중구나 용산구, 마포구 등 도심을 중심으로 약 4-5km 반경 이내 지역이었다. 그림 4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도심부에서 이전해 나간 입시학원의 이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원거리로 이전해 간 경우라도 동대문구나 동작구 등 도심 반경 약 8km내외 정도의 지역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동작구 노량진동은 1974년의 전철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대성학원, 성지학원, 상아탑학원, 중앙학원 등 도심의 학원이 다수 이전해 오면서 새로운 학원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말부터 서울시의 학원은 도심에서 주변지역으로 이동·확산되어 분포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입시와 관련된 학원이 도심을 제외한 지역에서

만 설립이 허가되는 학원정책 등에 의해 더욱 뚜렷해졌다. 1980년대 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입시관련 학원은 약 100여 개로 학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용산구 남영동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충정로동, 동작구 노량진동 등지에 일부 분포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그림 5). 특히 용산구 남영동에 많은 학원이 분포한 것은 도심의 학원이 4대문 밖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학원 입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선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의 이전과 설립은 여전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강북지역에서 새롭게 학원이 설립된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 지역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용두동, 이문동, 전농동 등과 광진구 증곡동 등지를 들 수 있다. 반면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동작구 노량진동 외에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지에 학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3) 강남 지역 성장기 (1981년 - 1990년)

1980년대는 서울시의 학원 중심지가 도심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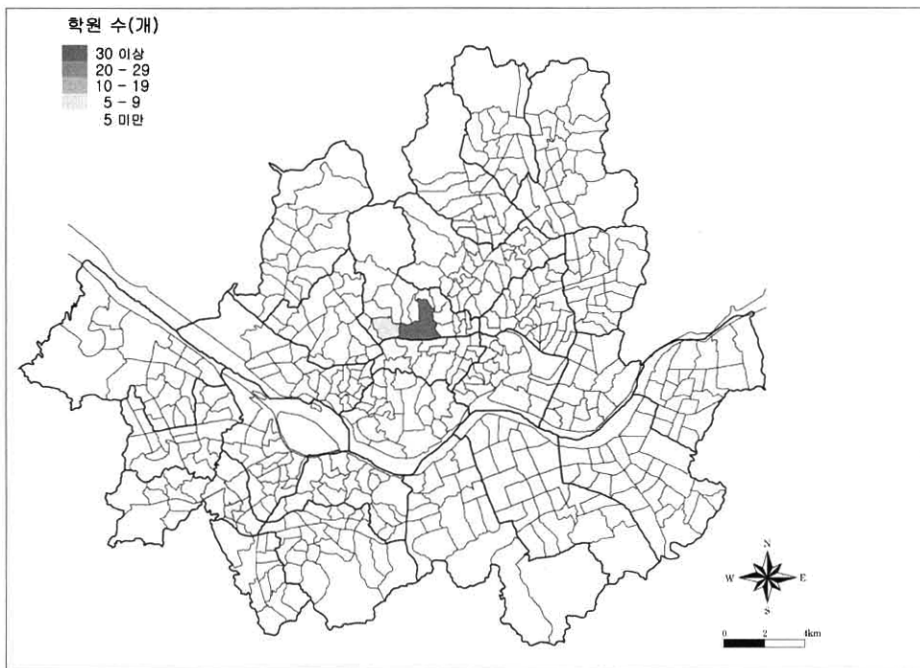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학원 분포(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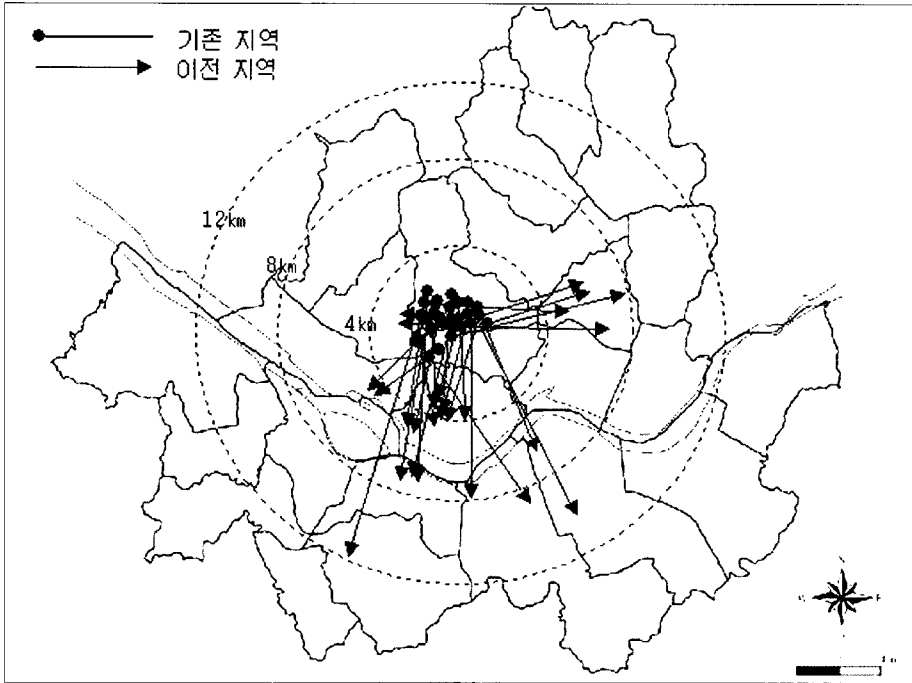


그림 4. 도심지의 학원 이전(1978-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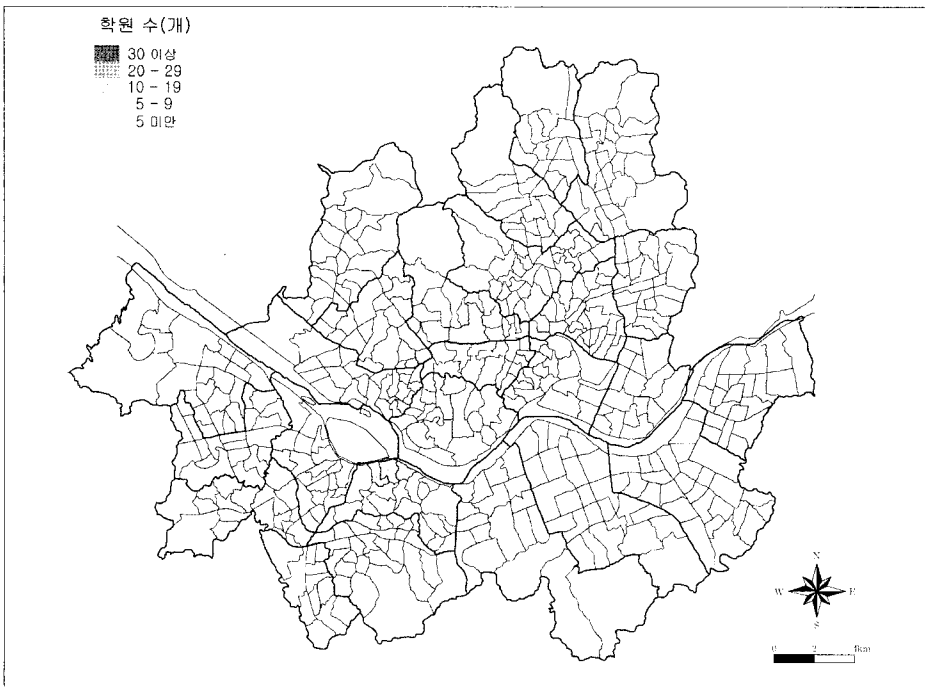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학원 분포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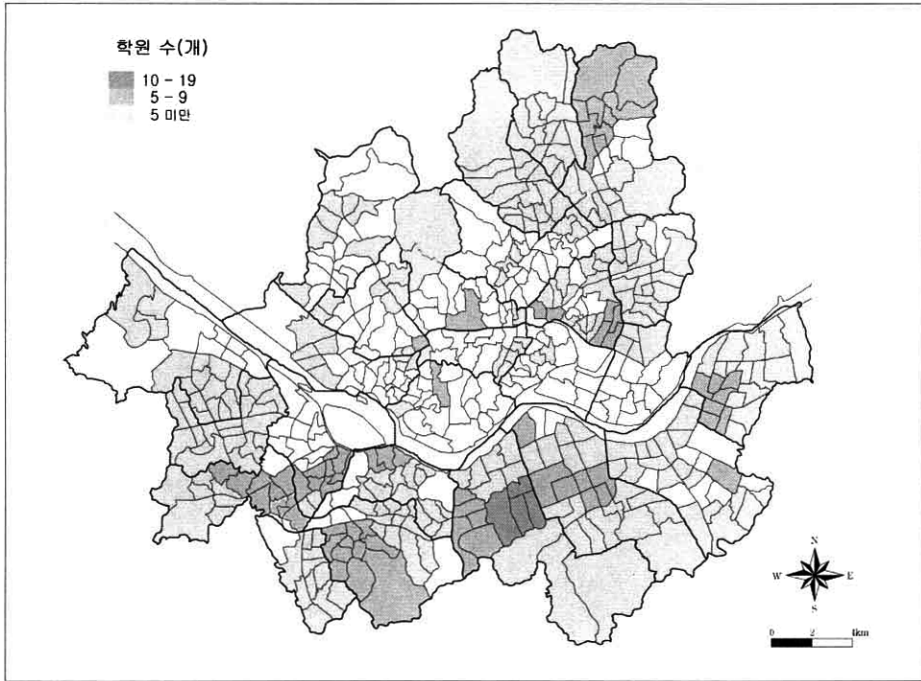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학원 분포 (1990년)

변으로, 한강이북 지역에서 한강이남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인 시기이다. 1980년대의 입시관련 학원은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와 1981년 교육법 제 23차 개정으로 과외가 금지되고 재학생의 학원 수강이 금지 되면서 큰 타격을 받아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학원 분포상의 변화도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입시학원의 설립 완화와 대학생의 과외 허용과 함께 재학생의 학원 수강이 일부 허용되면서 학원의 설립은 활기를 찾기 시작하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 1974년 처음 운행되기 시작한 지하철은 도심지의 인구 분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인구 변화는 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더욱 뚜렷해졌다.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과 승용차 시대로 서서히 변화하면서 강남 지역과 같은 새로운 고용 중심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학원 중심지의 공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1977년 정부의 수도권 재배치 계획 이후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는 서울시 예산이 강남에 집중 투입됨에 따라 주거의 중심이 한강이북 지역에서 한강이남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이 때 개

발된 영동지구는 신시가지로 개발되면서 도심의 전통 있는 명문고들이 많이 이전해 오고 신흥고등학교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학원 중심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6은 1990년의 서울시 학원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변화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기 학원 분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 학원의 중심지가 강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이것은 도심에서는 학원 설립이 어려워진 반면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잡은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등의 지역에서 학원 수요가 많아지면서 학원의 설립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 중 8학군에 해당하는 강남구, 서초구 등의 지역은 신흥 고등학교가 등장하고 대학 입학에 좋은 진학 성적을 거두면서 사교육 시장의 중심지로 인식되었고, 이 지역 거주자들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하에 학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의 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둘째, 서울시 학원의 중심지가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동하였다. 1980년의 학원이 대부분 도심 반경 6km 내에 분포한 반면, 1990년의 학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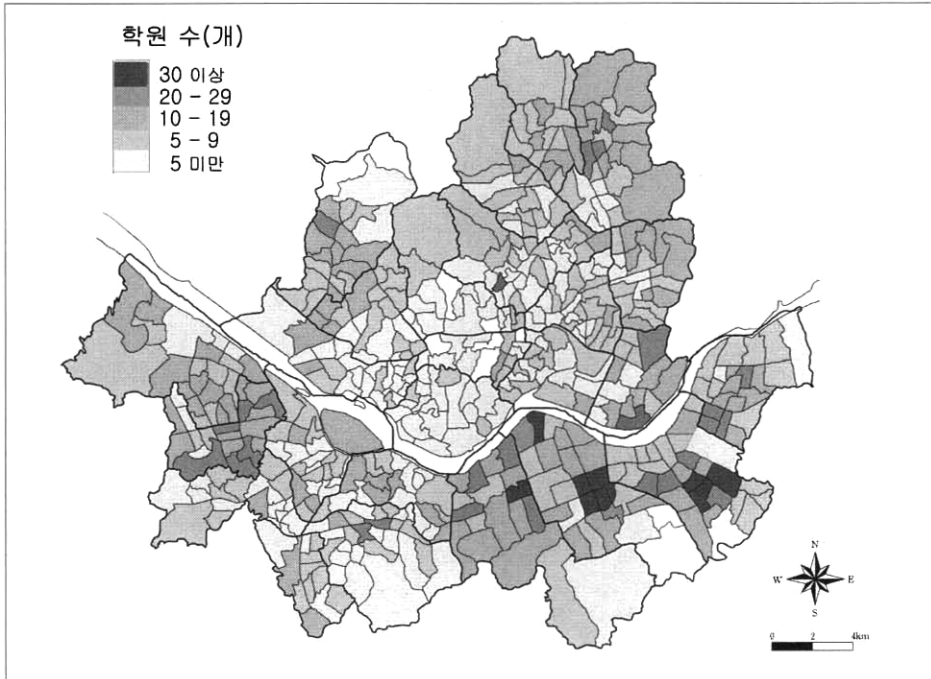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시 학원 분포 (2002년)

도심 반경 6-14km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의 확장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주거 지역이 도시 외곽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나타난 학령인구의 교외 이동과 도심의 인구 공동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강북 지역에서는 기존의 학원 중심지였던 도심 반경 6km 내의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의 지역에서는 종로1-4가, 남영동, 충정로 외에는 학원 분포가 미약하거나 한 개도 없는 동이 많은 반면, 도심에서 약 14km 떨어진 노원구 지역이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상계동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학원이 설립됐다. 강남 지역에서는 도심 반경 8 - 14km에 해당하는 신 주거지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이 증가하였는데 강남구의 신사동, 대치동, 서초구의 서초동, 방배동, 강동구의 천호동, 성내동, 송파구의 오금동 등지가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4) 분산기 (1991년 - 현재)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시 학원은 전 지역으로 확산된 분포를 보이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학원 정책과 대학 입시전형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7은 2002년 서울시 학원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사교육 증가 현상을 반영하듯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에 학원이 분포하고 있다. 중심업무기능이 집중된 종로구의 종로 5-6동, 삼청동, 중구의 소공동, 장충동 등이나 일부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원이 교육공간의 일부로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학원 중심가는 강남 지역의 대치동, 강서 지역의 목동, 강북 지역의 중계동⁵⁾ 등으로 이들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1970년대 후반 이후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되었으며 자녀 교육에 열의가 많은 30대~40대의 연령층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학원 교육의 지역차

1) 학원 분포의 지역차

서울시 학원은 2002년 현재 약 4,200여 개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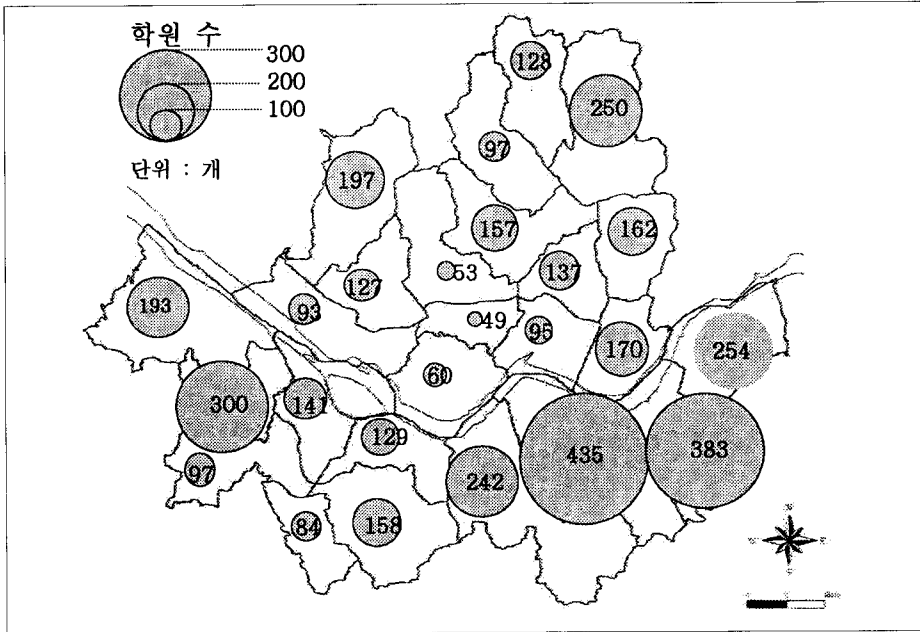


그림 8. 학원 분포의 지역차 (2002년)

별 분포를 보면 강남구에 전체 학원 수의 10.38%인 435개의 학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강동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8). 반면 중구(49개), 종로구(53개), 용산구(60개) 등은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지역의 교육기능이 교외지역으로 분산 이동된 결과 학원분포가 적고 금천구(84개), 성동구(95개), 구로구(97개) 지역은 공업 지대로 성장해온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학령인구의 유입이 적고, 수요자가 많지 않아 학원 분포가 미약한 편이다. 동별 학원분포를 살펴보면, 강남구의 대치1동, 대치4동, 송파구의 오금동 등은 50여개 이상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학원가'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서울시 전체의 71.5%인 372개 동에서 10개 미만의 학원이 분포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30개 이상의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1동, 대치 1, 2, 3, 4동과 서초구 서초 4동, 강동구 오금동, 송파 2동, 가락동 등을 들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강남구 신사동, 개포 3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 2동, 방배 4동, 서초 2동, 송파구의 삼전동, 석촌동, 가락 2동, 방이 2동, 강동구의 성내1, 2, 3동, 명일 1동, 양천구의 신정 3, 5, 6, 7동, 노원구의 상계 7동과 중계 3동 등도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학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2) 학원 교육 기회의 지역 차

지역 내에서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령 인구수(10-19세)와 학원 수를 이용하여 구별, 동별 입지계수를 구하였다. 입지계수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수록 학령인구에 비하여 학원이 많이 분포되어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1보다 작을수록 학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여 학원 교육의 기회가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구별 학원 교육 기회의 지역 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9). 학원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학원 교육을 받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학령기 자녀를 가진 세대의 인구의 유입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이다. 반면 입지계수가 0.7이하로 학원교육 기회가 낮은 지역으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구로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도심지의 비싼 임대료와 상주인구의 감소, 낙후된 교육 환경 등의 원인으로 학원 설립이 부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입지계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성북구 성북2동, 구로구 개봉2동, 강남구 수서동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이 지역들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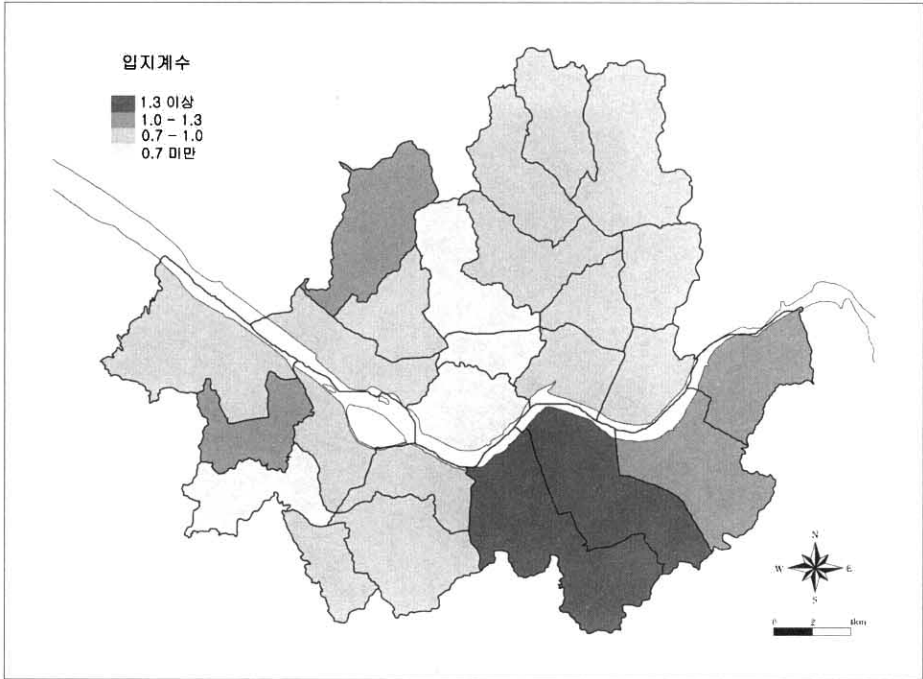


그림 9. 학원교육 기회의 지역차(행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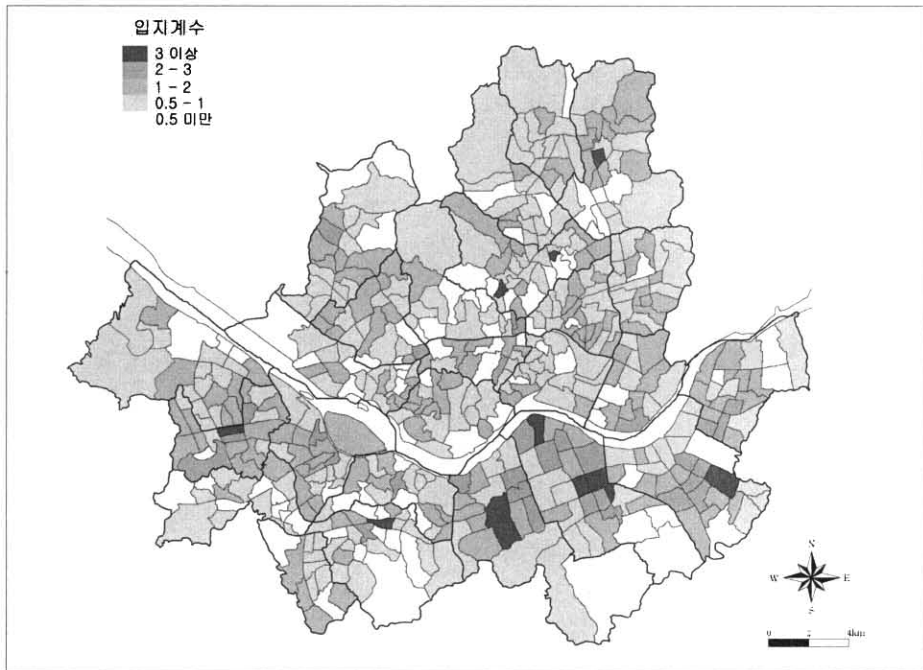


그림 10. 학원교육 기회의 지역차(행정동)

학원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 없는 아파트 단지나, 공업단지, 녹지지구만으로 행정동이 형성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다소 겪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서울시 도로체계와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과 관련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계수가 낮은 모든 지역의 학원 교육 환경이 모두 열악하다고는 볼 수 없다⁶⁾.

4. 학원 집적 지역의 특색

1) 강남구의 교육 지리적 특색

강남구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군의 일부였던 곳으로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고 1976년에 구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8년에는 송파구, 서초구 등이 분리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탄천을 경계로 송파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한남대교를 잇는 강남대로를 따라 서초구와, 남쪽은 구룡산과 대모산 능선을 따라 서초구 및 성남시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한강을 경계로 용산구, 성동구와 면하고 있다. 강남구는 1970년대 이후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개발진행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선별성을 띤 새로운 주거지로 형성되었다.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계획적인 도로망이 잘 발달함에 따라 도심의 주요 기능과 경기고, 경기여고, 휘문고, 숙명여고, 서울고 등 많은 명문 중·고등학교가 이전해왔으며 다른 지역보다 학교가 많은 편이다(그림 11).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지역으로 학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과외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 이 곳을 중심으로 입시에 관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고 입시제도의 변화도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 특히 대치동은 강남구 내에서도 학원의 밀집도가 높아 '학원가'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사교육 1번지이자, 고학력자 고소득자 고득점자가 많다 해서 '삼고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변에 은마, 미도, 선경 등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상위 계층의 거주민이 많은 편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 학원의 약 10.4%의 435개의 학원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학원 분포를 살펴보면 대

치1, 2, 3, 4동과 압구정 1동, 신사동, 개포3동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곡 2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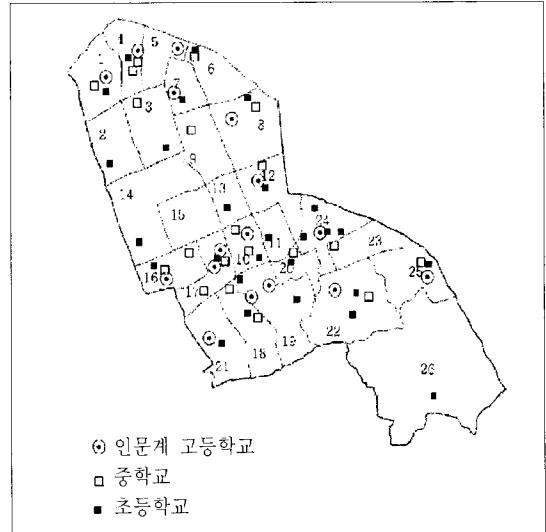


그림 11. 강남구 학교 분포(2002년)

- *주: 1. 신사동, 2. 논현 제1동, 3. 논현 제2동, 4. 압구정 제1동, 5. 압구정 제2동, 6. 청담 제1동, 7. 청담 제2동, 8. 삼성 제1동, 9. 삼성 제2동, 10. 대치 제1동, 11. 대치 제2동, 12. 대치 제3동, 13. 대치 제4동, 14. 역삼 제1동, 15. 역삼 제2동, 16. 도곡 제1동, 17. 도곡 제2동, 18. 개포 제1동, 19. 개포 제2동, 20. 개포 제3동, 21. 개포 제4동, 22. 일원 본동, 23. 일원 제1동, 24. 일원 제2동, 25. 수서동, 26. 세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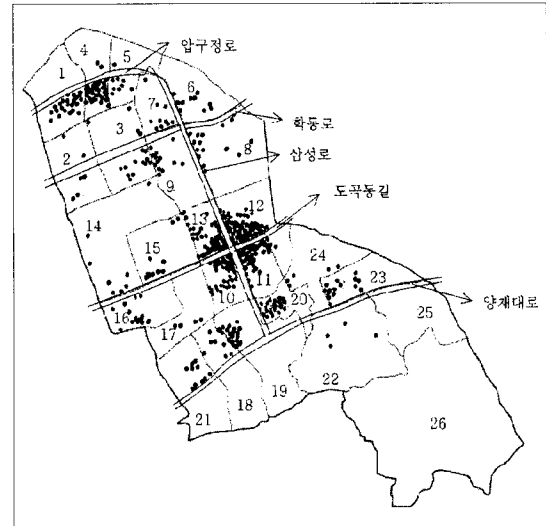


그림 12. 강남구 학원 분포 (2002년)

*주: 그림내 번호별 동명은 그림11과 동일함.

곡동 등에는 학원 분포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2). 도곡로와 삼성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대로 변은 대치 1동과 대치 3,4동이 도곡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 강남구 학원의 약 42%인 180여 개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 이 곳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택지였던 곳이 4-5층 내외의 소규모 상가 지역으로 바뀌면서 건물마다 평균 2-3 개의 학원이 입주해 있어 독특한 학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 강남구 학원의 특징

서울시 학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운영중인 80개의 보습학원을 대상으로 학원장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치동에는 모두 183개의 입시 관련 학원이 분포해 있으나 대형 입시학원은 7개뿐이고 나머지는 보습학원인 점을 고려하여 보습학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학원 규모와 교육 내용

학원의 규모를 교사 수로 파악한 결과 64.6%에 해당하는 학원이 5명 이하의 교사를 두고 있었으며, 5-10명의 교사 수를 가진 학원은 25%이고, 10명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원은 10.4% 정도밖에 안되었다. 이와 같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대치동 지역 대부분의 건물이 주로 4-5층 정도의 소규모 상가 건물 이어서 대형 입시학원의 설립이 어렵고 건물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 대규모로 운영하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대치동 학원의 대부분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서 학생들의 정규 학교 활동이 끝난 이후에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필요로 하는 교사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셋째, 학원을 찾는 많은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만족시켜줄 수 없는 능력별 교육을 받기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별, 능력별 수업을 하기에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다. 넷째, 잦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학원의 특성 및 운영도 수시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비교적 소규모의 학원이 대형 입시학원 보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소규모 학원 증가의 요인이다.

교육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77.1%에 해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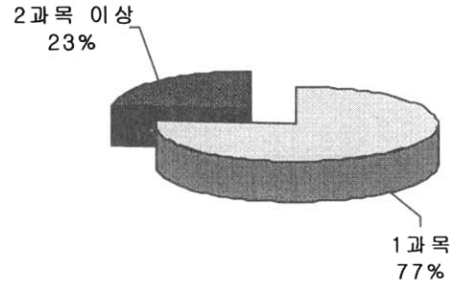


그림 13. 교육 과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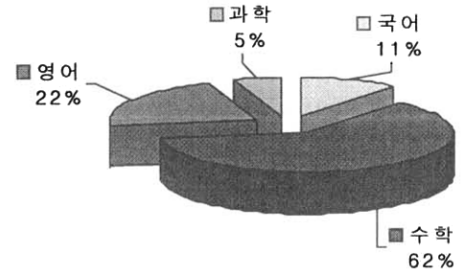


그림 14. 보습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

는 학원은 1과목만 교육하고 있고 2과목 이상을 교육하고 있는 학원은 22.9%로 보습학원의 상당 수 단일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어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전문학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그림 13). 1과목만을 교육하고 있는 학원 중 62.2%인 38개 학원이 수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 영어, 국어, 과학 등의 순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수학 과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 입시나 내신 성적에서 수학 과목의 비중이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14). 이 중 영어 교과를 교육하는 학원수가 적은 것은 영어 교과는 어학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개 과목 이상을 교육하는 학원은 대개 국어, 영어, 수학정도를 교육하고 있다. 보습학원의 수업 형태는 기본적으로 선행 학습으로 짧게는 2~3주, 길게는 1년씩 학교 진도를 앞서간다.

이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에 진학하려고 하는 교육 수요가 많고, 남들보다 앞서려는 교육열과 관련이 깊으며 또한 대학의 특정학과 진학에 유리한 경시대회가 선행학습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선행 학습의 유무와 학교 성적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가 있으나 이는 과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학원서비스의 범위와 통원형태

학원의 서비스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강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수강생들의 90% 이상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답한 학원이 약 52%에 달하는 41개였고, 80-90% 정도로 보는 학원은 40%에 달하는 32개로 대치동 학원의 수강생 대부분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구 외의 지역에서 오는 수강생들의 비율은 10%미만으로 서초구, 송파구가 대부분이다. 이는 보습학원이 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하는 곳으로 대다수 학생들은 주거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학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대치동 학원까지 수강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인식된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의 폭등은 학원의 집중뿐 아니라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교외 지역과의 연결이 고려된 부분, 교육 환경과 관련된 부분, 재산과 관련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러

나 입시학원의 경우, 규모가 보습학원보다 크고 유명 강사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거리에서 오는 비율이 보습학원보다는 큰 편이다.

입시학원 수강생이 학원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 - 40분 정도가 58%로 가장 많으며 20분 이내가 25%인 반면 보습학원 수강생의 통원 시간은 20분 이내가 가장 많으며, 4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수강생은 거의 없다. 통원 수단으로는 입시학원의 경우 학원버스 이용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보습학원의 경우 학원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대부분 버스와 도보를 이용하고 있다(그림 15, 16, 17, 18).

(3) 학원 입지 행태

현재 운영 중인 학원이 설립 당시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 해 올 때 입지에 고려한 점으로 50% 이상의 학원이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제1 조건으로 고려하였고 '주변에 중·고등학교의 분포가 많은점'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그림 19).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 지역에 많이 이전한 점과 강남의 신시가지가 중심으로 증산(증거)이 형성된 점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원의 입지 만족도를 조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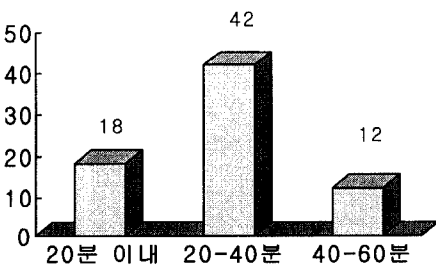


그림 15. 입시학원 수강생의 통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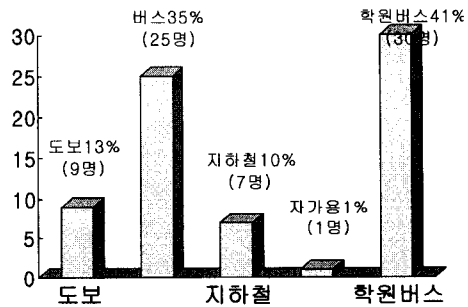


그림 17. 입시학원 수강생의 통원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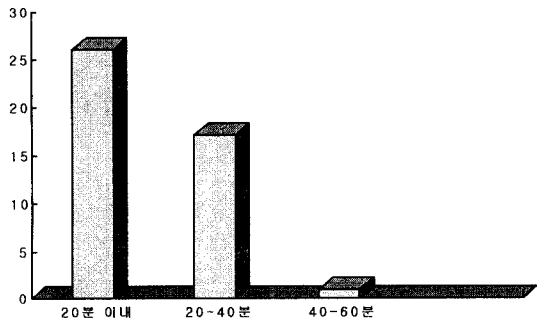


그림 16. 보습학원 수강생의 통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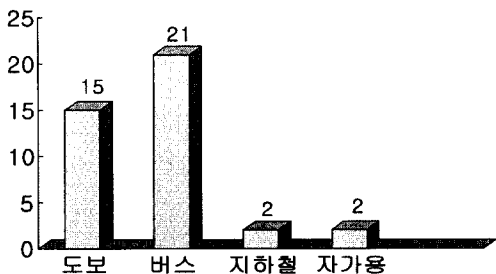


그림 18. 보습학원 수강생의 통원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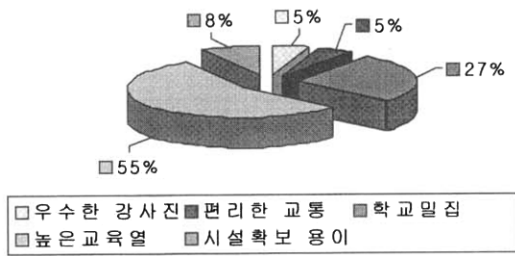


그림 19. 학원 입지에 고려한 점

자료에서도 볼 수 있어 설문에 참여한 학원의 56.2%에 해당하는 45개 학원은 현재의 학원 입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6% 정도의 학원만이 입지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의 학원이 향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며, 이전 계획이 있는 학원도 대부분 시설을 넓힐 수 있는 또 다른 대치동 지역을 선호하였다. 이는 대치동이 다른 지역보다 학원 수요가 많아 학원 운영 여건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원 운영에 어려운 점으로 약 27%가 학원시설이 협소한 점을, 19%가 높은 임대료를, 그외 잦은 입시정책의 변화, 학원 간의 지나친 경쟁 등을 들었다.

V. 결 론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약 60%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입시·보습학원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교육 형태로 고학년이 될수록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이해하고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입시·보습 학원은 학원 정책과 대학 입시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지역의 변화에 따라 공간적 분포상의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학원은 약 4200여 개로 대부분이 보습학원이며 주로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다. 학원 분포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편으로 강남구에 가장 많은 학원이 분포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노원구 등 순으로 밀집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서울

시의 인구분산정책과 더불어 신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학령인구에 비해 학원 수가 많아 비교적 학원 교육 기회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인 반면 구로구나 마포구, 강북구, 용산구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학원 교육을 받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오곡동,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중계동, 양천구 목동 등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최근 서울시 권역별 학원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학원 분포상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울시 주거 공간의 확산과 더불어 도심에서 주변으로, 강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학원의 중심지가 이동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강남구는 197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선별성을 띤 새로운 주거지로 형성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고 최근 대치동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대치동에 입지한 학원은 대부분 보습학원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상가의 2-5층에 입지하여 과목별 전문학원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학원 입지 선택 시 주민의 높은 교육열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으며 높은 건물 임대료와 학원 간의 지나친 경쟁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현재의 학원 입지에 만족하고 있다.

입시·보습학원은 가장 일반적인 사교육 유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 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학원 수의 지역별 차이는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커질수록 학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간의 형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우수한 중산층 거주지를 중심으로 집중하여 분포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의 세습과 교육의 불균등한 기회 제공이란 측면에서 장차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학원 정책을 전개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註

- 1) 학원은 정규 교육 기관과는 달리 개인에 의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설립과 폐쇄가 빈번하고 관리 감독부서의 통제력이 작아 세부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대상인 입시·보습학원의 정확한 자료는 해당년도의 서울시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학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학원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학원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당시 실제 운영된 학원수와 통계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2) 1999년 이전까지 학원의 교습과정은 기술분야, 문리분야, 경영실무분야, 예능분야로 구분되었으며 현재도 통계처리는 이와 같은 분류로 되고 있다.
- 3) 읍, 면 지역의 시설기준은 입시학원은 150m²이상, 보습학원은 60m² 이상이다.
- 4) 1970년대 도심에서 이전해 나간 학교는 채육고, 경기고, 휘문고, 보인상고, 엄광여고, 대원고, 동양공고, 덕수상고, 정신여고, 동대부고, 수도전고 등 9개교이다. 1980년대에는 숙명여고, 서울고, 동북고, 마포구, 배재고, 영락상고, 배명고, 중동고, 한영고 등 9개교이다.
- 5) 중계동 은행사거리 지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하계1동 방향으로 약 1.2km 정도의 거리에 약 200여개의 입시·보습학원이 몰려있어 최근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며 강북지역권의 새로운 학원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반경 2km 내에 7 - 8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유흥업소가 거의 없으며 주위에 청구, 신동아, 롯데 등 30~40평대의 중·대형아파트가 모여 있는 입지여건이 대치동과 흡사하다고 한다.
- 6) 예를 들어 송파구 오륜동은 아파트 단지만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지역 내 학원 분포가 적어 입지계수가 낮으나 서울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진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7) 2003년 서울여대 VIP마케팅 컨소시엄과 마케팅 전문기업 타스테크에서 전국의 행정동별 가구당 평균 봉급을 조사한 자료에서 대치 4동은 5천4백3백여만 원으로 전국 8위, 그 뒤로 대치 2동이 (52,518,117원) 12위, 대치 1동 (50,359,446원)이 33위를 차지하였다.

참고문헌

교육법전편찬위원회, 199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교육법전.
 서울시 전신전화국, 1970, 1975, 1981, 1985, 1990, 서울시 전화번호부(직업별).
 서울특별시교육청, 1965-2002,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서울육백년사.
 한국교육신문사, 1993, 한국교육연감.
 강경석 외, 2001, "사교육 해소 방안", 교육행정학연

구, 19(3), 149-180.
 강삼모, 1994, 서울의 공간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익, 1983, "서울시 사무업무 활동의 입지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김종철, 1989, 사학정책의 전개,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김용환, 1995,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김한나, 1992, 서울시 교육공간의 지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도경선, 1994,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영한,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1-37.
 서태열, 1987, "서울시 고등학교의 분포와 학군에 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1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19.
 송윤선, 1992, 교육환경의 사회지리적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영심, 1998, 서울시 유치원의 성장과 분포패턴,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유정량, 1989, 서울시 인구현상 변화와 중·고등학교 입지분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순애, 1999,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사설학원과 그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전도산, 1990, 서울시 고등학교 제8학군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상욱, 1995, 학원설립운영 법령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조창연, 1979, "서울시 중심지역의 인구변화와 학령인구에 대한 지리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45-165.

지현주, 1988, 학령인구의 분포와 교육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Massam, B. H., 1974, Political geography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Progress in Geography*, 6, 179-210.

Herbert, D. T., 1976, Urban education, problems and politics, in D. T. Hurbert and Johnston, R. T.

eds., *Social Areas in Cities*, 2, John Wiley & Sons, 123-158.

Talen, E., 2001, School community and spatial equity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ess to elementary school in west virgini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3).

최초투고일 2004. 10. 30.

최종접수일 2004. 11. 30.